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본 經筋과 經脈에 대한 연구

하성준 · 강정수 ·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about the Meridian Muscles and the Meridia, Following the View of the Mutual Correspondence of the Heaven and the Men

Sung Joon Ha, Jung Soo Kang, Byoung 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Meridians are the pathways of the qi and blood, and can be used as the media of the diagnosis and treatments. There has been numerous studies about the meridians, but as the kinesiology develops recently and the attention for the meridian muscles is growing, the meridian muscles are now recognised as the complementary entity of the meridians. In this document, we considered the meridian muscles and the meridia, following the traditional thoughts of the oriental medicine, as the images of the mountains and the rivers.

Key words : Meridian, meridian muscles

서 론

《周易·繫辭傳》에 “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 謂之器¹⁾”라는 말이 있다. 형체를 초월하는 추상적인 것을 ‘도(道),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을 ‘기(器)라고 하였다²⁾. 그릇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듯이, 유형적인 구조(실체)가 있어야 무형적인 기능이 작용을 한다. 본질적인 면에서 이들은 뚜렷하게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는 것으로, 기능의 변화는 구조의 변화를 결정하고 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또한 기능의 변화를 수반³⁾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한의학은 이렇게 陰陽의 관점에서 人身을 全一의로 바라보고 그 관계성을 인식하였으되, 《東醫寶鑑》에 <身形>篇이 제일 처음에 놓인 것처럼 항상 人身의 유형적인 구조(形)를 벗어나지 않았다.

經絡은 人體의 氣血을 運行하는 通路이며, 안으로는 臟腑에 속하고 밖으로는 全身에 분포되어 각 部의 조직과 기관을 연결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이룬다. 《靈樞·經脈》에서 “경맥은 生死를 결정하고 百病을 진단하는 곳이며 虛實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잘 알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경락이론 연구의 중요성을 가리키며⁴⁾ 경락계통이 氣血運行의 通路이며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주요 계통임을 증명한다. 경락계통에는 十二經脈, 奇經八脈, 十五絡脈, 十二經別, 十二經筋, 十二皮部 등이 있는데⁵⁾, 기존의 견해 대부분은 十二經脈에 중점을 두었고 상대적으로 經筋에 대한 이해는 經脈보다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람의 몸은 궁극적으로는 唯物에 속한다. 經筋은 확실히 살펴볼 수 있는 형질이 있는데 《靈樞》에 일찍이 기술한 바 있고 근대의 의서는 생리, 해부적으로 그것을 더욱 자세히 해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經脈⁶⁾은 비록 볼 수 있는 형질은 없으나 확실히 실질적인 작용은 있다⁷⁾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형질을 갖는 經筋을 연구하면 경맥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지리라 본다.

이에 저자는 《周易·繫辭傳》에서 제시한 “遠取諸物⁸⁾”의

* 교신저자 : 김병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3-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bsoo25@dju.ac.kr, · Tel : 042-280-2648

· 접수 : 2005/07/26 · 수정 : 2005/08/25 · 채택 : 2005/09/26

- 1) 김석진 감수·동방문화진흥회 정리, 주역정문, 서울,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2001, p. 214.
- 2) 周春才 글·그림, 김남일·강태의 옮김, 醫易同源 易經, 서울, 청흥, 2003, p. 37.
- 3) 金完熙 외 11명,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p. 19.
- 4) 程莘農 主編, 申順植 監修·陰陽脈診出版社 編輯部 譯, 中國針灸學, 서울, 음양맥진출판사, 1996, p. 92.
- 5) 程莘農 主編, 申順植 監修·陰陽脈診出版社 編輯部 譯, 中國針灸學, 서울, 음양맥진출판사, 1996, p. 92.
- 6) 원문에는 ‘경락’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경맥’으로 고침. 이하 인용문도 동일함. (著者 註)
- 7) 高式國·周楣聲 著,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제2기 譯, 國譯鍼灸穴名解·鍼灸穴名釋義, 서울, 一中社, 1996, p. 21.
- 8) 김석진 감수·동방문화진흥회 정리, 주역정문, 서울,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2001, p. 217.

방편을 통해 경맥과 경근을 ‘陰陽’과 ‘天人相應’의 관점에서 자연으로 取象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론

1. 經脈에서 經筋으로

經絡은 經脈과 絡脈에 의하여 氣血이 運行산포되는 경로이며, 체내로는 각 장부와 연속되고 체표로는 근육이나 피부 등과 연계됨으로써 내외로 관통하고 중흥으로 교차하여 장부와 지체 각부를 긴밀하게 결합시켜 통일된 종합체를 형성한다⁹⁾. 經絡은 시작과 끝이 없는 고리와 같아 그 흐름이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그리하여 전신의 조직과 기관에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활동을 유지한다¹⁰⁾. 이와 같이 전신을 유기적으로 엮고 있는 관계를 《內經》 및 역대 문헌에서 天地人物相應의 관점으로 十二經絡의 체계를 十二經水에 비유하였다¹¹⁾. 즉 國家의 유기적인 조직망을 강의 흐름에 비유하였고, 그것을 인체에 적용한 것이다¹²⁾.

十二經筋의 개념은 十二經脈의 氣가 근육관절 체계에서 모이고[聚] 흩어지고[散] 맺히는[結] 것으로 十二經脈의 附屬部分이어서 그 명칭이 十二經脈과 동일하며, 十二部分으로 나누어 十二經筋이라 칭하였다. ‘筋’은 《說文解字》의 해석에 “肉之力也”라 하여 힘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肌肉을 의미한다. 또한 “腱”은 筋之本으로 筋을 骨格 부분에 부착시키는 것이다. 經筋은 四肢末端에서 시작하여 頭身으로 향하고 관절과 골격부에 結聚하여 胸腹腔로 들어가되 內部 臟腑로 들어가지는 않는다¹³⁾.

역대 醫家의 침구이론이나 원리가 형이상학적인 經脈이나 穴을 爲主로 정립되고 체계화된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형이하학적인 經筋의 작용과 기능은 단지 十二經脈의 附屬部分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¹⁴⁾. 그러나 최근 근육학의 발달로 구체적인 經筋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으로 인해 經筋은 經脈과 대등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의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다.

《靈樞·邪客》에서 “人與天地相應¹⁵⁾”이라 하였듯이 人身은 天地 自然을 본받아 구조를 이루고 작용을 발휘한다. 高 등¹⁶⁾은 설명하기를 穴位는 經脈에 매여 있고 經脈은 經筋에서 나온다 하였다. 經筋은 山脈과 같고 經脈은 河川과 같고 穴位는 하천의 양쪽 독을 따라 형성된 마을일 뿐이다. 그러므로 穴位를 말하려면 먼저 經脈을 말하고 經脈을 말하고자 하면 먼저 經筋을 말해야 한다.

2. 天人相應 관점에서 본 山水와 經筋·經脈

天人相應의 관점은 天人合一의 관점으로 天人共通規律과 天人相應規律의 두가지 관점이 있다. 天人相應規律은 天地自然과 人身이 서로 교류한다는 관점이고, 天人共通規律은 天地自然의 모습에 비유되는 모습이 人身에 있어서 ‘人身이 小天地’가 된다는 관점이다¹⁷⁾.

小天地라 함은 天地의 축소판이 사람이라는 뜻이니 사람의 肉體, 骨格, 氣血, 筋脈의 구조와 四體의 동작과 精神의 작용이 天地의 형체와 흡사하고 陰陽의 動靜에 부합한다는 말이다. 天은 無形이고 地는 有形이니, 無形은 人身의 氣로 나타나고 氣는 다시 脈으로 나타나고, 有形은 血로 나타나고 血은 다시 筋肉動作으로 나타나서 氣의 衰旺으로 天의 消息을 알 수 있고, 血의 虛實로 地의 寒熱을 알 수 있다¹⁸⁾.

天地의 법칙은 無形의 時間과 有形의 空間으로 표현될 수 있다. 天法이 時間性的인 법칙이라면 地法은 空間學을 서술한다. 앞에서 經筋과 經脈을 山水 자연으로 取象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自然 地理를 서술하는 風水學의 관점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空間學인 地法의 論理라고 할 수 있다.

肉體는 陰으로 地를 상징한다. 地는 天氣를 順從하므로 天氣의 변화에 따라서 肉體에 변화가 生하며 地는 靜하고 動하지 못함에 반하여 肉體는 動하니, 이 動하는 것은 天의 작용이고 肉體의 모양을 형성한 것은 地의 작용이다¹⁹⁾.

《靈樞·邪客》에 “地有高山하니 人有肩膝하고 地有深谷하니 人有腋脇하고 地有十二經水하니 人有十二經脈하고 … 地有小山하니 人有小節하고 地有山石하니 人有高骨하고 地有林木하니 人有募筋하고²⁰⁾”라는 말이 있다. 솟은 곳과 파인 곳을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에 비유했고, 12개의 하천을 12경맥에 비유했으며, 작은 산을 小節에, 산에 있는 돌을 高骨에, 숲의 나무를 筋에 비유했다.

高 등²¹⁾은 “經脈은 經筋에서 생기는데 두 개의 經筋 사이에 하나의 經脈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산 사이에서 하나의 계곡이 이루어지는 것, 두 언덕 사이에서 하나의 河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침구 치료에서 經脈을 따라 穴을 취하는 것이 모두 두 筋 사이의 틈에 있다”하여 經筋과 經脈을 산맥과 하천, 즉 山水로 取象하여 제시했다.

經筋은 산맥과 같고 經脈은 하천과 같다²²⁾는 논리는 風水地理學의 山水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陰陽의 관계(高低와 動靜)로 접근할 수 있다. 明山論에 “무릇, 二氣가 融結해야 산이 되고 물이 되는 것이니 山水를 陰陽이라 일컫는다”²³⁾고 하여 自然地理를 서술하는 기본개념이 山水임을 서술하고 있다.

有形의 구조적인 면에서 山과 水를 높이로 나눈다면 山은

9) 심원보·김용득·안영남·김경식·손인철, 十二經筋과 筋肉과의 關係에 대한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Vol. 20 No. 2, 2003, p. 137.
10) 康鎭彬 著, 최용태·이혜정·임사비나 共譯, 경전침구학, 서울, 一中社, 2000, p. 12.
11) 李樞,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19.
12) 과거 대부분의 운송수단이 강이었고, 촌락과 마을의 형성 또한 강변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지금도 水源의 량에 따라서 도시의 인구수가 제한이 된다. (著者 註)
13) 王洪圖, 黃帝內經 研究大成(中), 北京, 북경출판사, 2000, p. 1191.
14) 金容奭·高炯均·金昌煥, 頭頸部の 筋疾患에 經筋理論 活用을 爲한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제9권 1호, 1992, p. 103.
15) 金善鎬, 善乎 靈樞(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262.
16) 高式國·周楣聲 著,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제2기 譯, 國譯 鍼灸穴名解·鍼灸穴名釋義, 서울, 一中社, 1996, p. 20.

17) 김완희, 한의학원론, 서울, 성보사, 1990, pp. 74-75.
18) 宋点植 撰, 醫學輯要, 서울, 圖書出版 曉林, 1994, p. 27.
19) 宋点植 撰, 醫學輯要, 서울, 圖書出版 曉林, 1994, p. 29.
20) 金善鎬, 善乎 靈樞(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263.
21) 高式國·周楣聲 著,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제2기 譯, 國譯 鍼灸穴名解·鍼灸穴名釋義, 서울, 一中社, 1996, p. 21.
22) 高式國·周楣聲 著,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제2기 譯, 國譯 鍼灸穴名解·鍼灸穴名釋義, 서울, 一中社, 1996, p. 20.
23)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서울, 민음사, 1986, p. 37.

높으므로 陽이 되고 水는 낮으므로 陰이 된다. 산맥이 형성되어 야 물길이 생기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經脈의 흐름은 經筋의 構造에 의하여 생명이 된다. 두 개의 經筋 사이에 하나의 經脈이 이루어지는 것은 두 산 사이에서 하나의 계곡이 이루어지는 것, 두 언덕 사이에서 하나의 하천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²⁴⁾. 그러므로 水에 해당하는 經脈은 山에 해당되는 經筋에 의해 그 흐름이 決定된다.

無形의 기능적인 면에서 山과 水²⁵⁾를 활동성으로 나눈다면, 山은 陰이며 水는 陽으로 해석된다²⁶⁾. “山은 靜物로 陰에 속하고 水는 動物로 陽에 속한다. 그런데 陰은 體常을 道로 하고 陽은 變化를 주로 하기 때문에 吉凶禍福은 水에 더 잘 나타난다” 하였고 “대개 山은 사람의 형체와 같고 水는 사람의 혈액과 같은 것으로, 사람이 있어 형체의 生長枯榮은 모두 혈액으로 비롯된 것이다. 혈액이 사람의 몸 속을 흘러다님에 있어서 그 度數가 순조로우면 그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고 튼튼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失節케 되면 그 사람은 병들어 망함이 자연의 이치인 것이다”²⁷⁾ 라고 하여 水와 經脈의 活動性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山에 해당하는 經筋은 水에 해당하는 經脈의 調節을 받는다.

3. 水의 관점에서 본 經脈의 분포 및 순행

경락계통의 주체인 十二經脈은 안으로는 장부에 소속되고 밖으로는 사지관절에 연결되어 표리를 연계시키고 상하를 관통 시킴으로써 인체 조직,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인체 기능의 협조와 통일을 유지하게 한다²⁸⁾.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六經은 爲川이오 腸胃는 爲海²⁹⁾”라고 했다. 十二經脈은 사지 말단에서 발원하여 하천처럼 흘러서 체간에 있는 바다인 腸胃로 향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靈樞·經水》에서는 “12개의 經脈은 밖으로 12개의 河流(經水)에 응한다³⁰⁾”고 하여 경맥을 주요한 하천에 비유했으며, 《靈樞·海論》에서 “사람에게도 (천지 자연과 상응하는) 四海와 十二經水가 있습니다. 經水는 모두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는 동서남북에 있으니 이를 四海라고 합니다. ... 사람에게는 髓海(腦), 血海³¹⁾(衝脈), 氣海(膻中), 水穀之海(胃)가 있는데, 이 네가지가 四海에 응합니다³²⁾”라고 하여 經水가 四海로 흘러들어감을 설명하였고, 이는 經脈이 體幹으로 향하여 가는 것과 같다. 이것은 標本·根結 이론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데, 김³³⁾은 “四肢는 아래에 있어서 根과 본이 되고, 頭身은 위에 있어서 結과 標가 된다. 하나는 經氣가 出하는 곳이고 하나는 經氣가 歸하는 곳이다”라고 하였다.

4. 山의 관점에서 본 經筋의 분포 및 순행

十二經筋은 十二經絡의 外連으로 十二經脈의 氣가 筋肉組織에 結, 聚, 散, 絡하는 체계³⁴⁾이며 그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四肢의 末端에서 上向하여 일정한 부위로 연계되어 起하고, 結하고, 한데 모이고 散布하는 게 있고, 頭身으로 上達하지만 臟腑에는 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부의 屬絡관계와 氣血의 流注관계는 없다³⁵⁾.

十二經筋은 四肢末端에서 체간으로 향하여 가지만 장부에는 入하지 않는 것이 경맥과의 차이점이다. 이는 물길이 하천으로 흘러와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맥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평지를 이루고 결국에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산맥이 바다에서는 그 모습을 감추는 것처럼 경근은 장부와 屬絡 관계를 맺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바다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해저산맥이 있는 것처럼 장부에도 그에 상응하는 내장근³⁶⁾이 있다고 본다. 經筋을 골격근³⁷⁾ 위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산맥으로 인하여 하천의 흐름이 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해저산맥은 바닷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근을 연구할 때는 내장근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經筋에 대한 연구는 골격근 뿐만 아니라 내장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山水의 관점에서 본 經脈과 經筋의 기능 및 작용

經脈은 장부와 지절을 연결하는 작용이 있어 표리를 소통시키고 상하를 연결시키며 인체 각부의 조직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인체의 五臟六腑, 四肢百骸, 筋骨皮肉 등의 조직기관이 정상적인 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락이 陽氣를 운행시키고 陰液을 공급하여야 한다³⁸⁾. 심이경근의 순행부위는 심이경맥과 대체로 같으나 작용은 다르다³⁹⁾. 물(水)이 만물을 적시며 생명을 주는 것처럼 심이경맥이 기혈을 장부 및 지절로 순환·운행시키는 것과 같이, 산맥이 땅을 잇는 것처럼 심이경근은 모든 뼈를 연계하여 온몸을 연결한다.

경근은 골격의 결합을 주관하고 관절의 굴신활동에 관여하며 지체의 운동에 대하여 중요한 작용을 한다⁴⁰⁾. 《靈樞·邪客》에 “地有林木하니 人有筋⁴¹⁾”라 하여 筋(筋膜)을 숲의 나무에 비유했고, 《素問·五運行大論》에서 “風氣는 動하게 한다⁴²⁾”고 한 것처럼 움직임은 風과 관계가 있으며, “東方生風하고

24) 高式國·周楣聲 著,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제2기 譯, 國譯 鍼灸穴名解·鍼灸穴名釋義, 서울, 一中社, 1996, p. 21.

25) 원문에는 '물'이라고 되어 있으나 글의 일관성을 위해 '水'로 고침. (著者 註)

2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서울, 도서출판 일빛, 1999, p. 91.

27)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서울, 민음사, 1986, p. 37.

28) 康鎭彬 著, 최용태·이혜정·임사비나 共譯, 경전침구학, 서울, 一中社, 2000, p. 12.

29) 尹暢烈·李南九·金善鎬 懸吐·解釋, 懸吐 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水注(上), 대전, 周珉출판사, 2003, p. 143.

30) 金善鎬, 善乎 靈樞(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82.

31) 같은 篇의 뒤에는 十二經之海라고 나온다. (著者 註)

32) 金善鎬, 善乎 靈樞(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 360-361.

33) 金善鎬, 善乎 靈樞(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21.

34) 송호섭·강미정·임정은·권순정·강미숙·이성노·변임정·황현서·김기현, 腰部 經筋의 急性 捻挫에 經筋刺鍼 및 經筋弛緩療法이 미치는 影響, 대한침구학회지 제18권 제6호, 2001, p. 7.

35) 程幸農 主編, 申順植 監修·陰陽脈診出版社 編輯部 譯, 中國針灸學, 서울, 음양맥진출판사, 1996, p. 141.

36) visceral muscle. (著者 註)

37) skeletal muscle. (著者 註)

38) 康鎭彬 著, 최용태·이혜정·임사비나 共譯, 경전침구학, 서울, 一中社, 2000, p. 116.

39) 康鎭彬 著, 최용태·이혜정·임사비나 共譯, 경전침구학, 서울, 一中社, 2000, p. 73.

40) 한무규·허수영·김성진, 筋膜痛症候群과 經筋理論의 聯關性에 對한 考察, 동서의학 Vol. 25 No. 2, 2000, p. 42.

41) 金善鎬, 善乎 靈樞(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263.

42) 尹暢烈·李南九·金善鎬 懸吐·解釋, 懸吐 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水注(下), 대전, 周珉출판사, 2004, p. 38.

風生木하며 木生酸하고 酸生肝하며 肝生筋하고 ... 在體爲筋이오 ... 其用爲動⁴³⁾이라 한 것과 《素問·宣明五氣篇》에서 “肝主筋⁴⁴⁾”이라 한 것처럼 經筋은 風木의 성질을 갖고 있는 肝과 같은 계열로써 肢體의 運動에 관여한다.

6. 水의 관점에서 본 經脈의 병증

十二經脈 중의 각 경맥에는 모두 일정한 순행경로와 屬絡되는 장부가 있으며 각기 다른 病候가 있다. 그 病候의 표현은 두 개의 面으로 分屬될 수 있다. 하나는 本經의 臟 또는 腑의 機能失常이고, 다른 하나는 本經 循行部位의 병증이다⁴⁵⁾.

本經 循行部位의 병증을 水의 관점에서는 물길(水路)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면 고이는 곳이 생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넘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므로 《素問·調經論》에 “經脈之病 皆有虛實”이라 하였다.

本經 장부의 기능실상을 水의 관점에서는 水質의 문제로 볼 수 있다. 脾胃에서 穀氣上注於肺하여 經氣가 경맥으로 흐르듯이 바다에서 수증기(霧露之氣)가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려 물이 하천으로 흐르는데, 오염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 하천 내지는 바다가 오염되거나 중간에 고인 곳에서 썩어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다.

7. 山의 관점에서 본 經筋의 병증

經筋은 관절과 근육의 운동을 주관한다. 그 병변은 운동계통의 질병이 위주가 된다⁴⁶⁾. 經筋에 일어나는 주된 병증은 주로 痺痛, 拘攣, 強急, 轉筋, 痿軟 등⁴⁷⁾으로, 예를 들면 입상에서 흔히 보이는 연부조직손상, 근육의 풍습통, 각종 관절염 및 운동신경계질환으로 인한 근육경련이나 마비 등이 있다⁴⁸⁾.

경근의 병증을 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산사태가 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산사태가 나면 물길이 막혀서 물이 흐르는 양이 줄게 되고, 다른 쪽으로 범람하여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근에 손상이 오면 경맥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虛한 곳과 實한 곳이 생겨 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경근은 산맥과 같고 경맥은 하천과 같다. 이는 風水地理學의 山水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陰陽의 관계로 접근할 수 있다. 有形의 구조적인 면에서 山과 水를 높이로 나눈다면 山은 陽이 되고 水는 陰이 되며, 水에 해당하는 經脈은 山에 해당되는 經筋에 의해 그 흐름이 결정된다.

無形의 기능적인 면에서 山과 水를 활동성으로 나눈다면 山은 陰이며 水는 陽으로 해석되며, 山에 해당하는 經筋은 水에 해당하는 經脈의 조절을 받는다.

經脈은 經水가 四海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이 사지말단에서 발원하여 하천처럼 흘러서 체간에 있는 바다인 腸胃로 향한다. 經筋 또한 사지말단에서 체간으로 향하여 가지만, 산맥이 바다에서는 그 모습을 감추는 것처럼 경근은 장부와 屬絡 관계를 맺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바다 속에도 보이지 않는 해저산맥이 있는 것처럼 장부에도 그에 상응하는 내장근이 있다고 본다.

水의 관점에서는 경맥의 本經 循行部位 병증을 물길(水路)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本經 장부의 기능상실을 水質의 문제로 볼 수 있다. 山의 관점에서 볼 때 경근에 손상이 오면 산사태가 나서 물길이 막히는 것과 같이 경맥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虛한 곳과 實한 곳이 생겨 병이 발생한다.

참고문헌

1. 김석진 감수, 동방문화진흥회 정리. 주역정문. 서울, 사단법인 동방문화진흥회, 2001.
2. 周春才 글·그림, 김남일·강태의 옮김. 醫易同源 易經. 서울, 정흥, 2003.
3. 金完熙 외 11명. 東醫生理學.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4. 程莘農 主編, 申順植 監修·陰陽脈診出版社 編輯部 譯. 中國針灸學. 서울, 음양맥진출판사, 1996.
5. 高式國, 周楣聲 著, 경산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제2기 譯. 國譯 鍼灸穴名解·鍼灸穴名釋義. 서울, 一中社, 1996.
6. 심원보, 김용득, 안영남, 김경식, 손인철. 十二經筋과 筋肉과의 關係에 대한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Vol.20 No.2, 2003.
7. 康鎭彬 著, 최용태·이혜정·임사비나 共譯. 경전침구학. 서울, 一中社, 2000.
8. 李槌.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9. 王洪圖. 黃帝內經 研究大成(中). 北京, 북경출판사, 2000.
10. 金容奭, 高炯均, 金昌煥. 頭頸部の 筋疾患에 經筋理論 活用을 爲한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제9권 1호, 1992.
11. 金善鎬. 善乎 靈樞(下). 대전, 주민출판사, 2003.
12. 김완희. 한의학원론. 서울, 성보사, 1990.
13. 宋点植 撰. 醫學輯要. 서울, 圖書出版 曉林, 1994.
14. 崔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서울, 민음사, 1986.
15.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서울, 도서출판 일빛, 1999.
16.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懸吐·解釋, 懸吐 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水注(上). 대전, 周珉출판사, 2003.
17. 金善鎬. 善乎 靈樞(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18. 송호섭, 강미정, 임정은, 권순정, 강미숙, 이성노, 변인정, 황현서, 김기현. 腰部 經筋의 急性 捻挫에 經筋刺鍼 및 經筋弛緩療法이 미치는 影響. 대한침구학회지 제18권 제6호, 2001.
19.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懸吐·解釋, 懸吐 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水注(下). 대전, 周珉出版社, 2004.
20. 박희수, 정희원. M.P.S와 침구경혈학. 서울, 一中社, 1999.

43) 尹暢烈·李南九·金善鎬 懸吐·解釋, 懸吐 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水注(下). 대전, 周珉출판사, 2004, p. 41-47.

44) 尹暢烈·李南九·金善鎬 懸吐·解釋, 懸吐 完譯 黃帝內經素問 王水注(上). 대전, 周珉출판사, 2003, p. 473.

45) 程莘農 主編, 申順植 監修·陰陽脈診出版社 編輯部 譯. 中國針灸學. 서울, 음양맥진출판사, 1996, p. 432.

46) 박희수·정희원. M.P.S와 침구경혈학. 서울, 一中社, 1999, p. 45.

47) 程莘農 主編, 申順植 監修·陰陽脈診出版社 編輯部 譯. 中國針灸學. 서울, 음양맥진출판사, 1996, p. 141.

48) 박희수·정희원. M.P.S와 침구경혈학. 서울, 一中社, 1999, p. 46.